

인간다움을 유지하는 것



홍경안 역
시시일각

아무런 죄 없이 겪는 술한 익명의 비극을 목도할수록 희망이라는 단어를 참으로 공허하게 들린다. 고통과 불행에 마주할 때, 우리는 곧잘 "이 세상이 과연 나아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는다. 인류의 역사는 아픔과 상처로 점철 된 여정이었고, 제 아무리 밝은 미래를 소망할들 달라진 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가자지구, 수단, 미얀마 등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 및 정치적 불안으로 인한 국민의 도탄과 잔혹한 결과들은 21세기에도 인간의 삶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다. 매일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증오와 폭력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과거의 어둠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음을 방증한다.

케테 콜비츠(Kathe Kollwitz)의 '전쟁' 연작은 전쟁의 참혹함과 인간 존엄성 상실을 새긴 목판화다. 전쟁으로 아들을 잃은 작가 개인의 비탄과 사회적 비극을 거친 선과 어두운 명암으로 버무렸다. 전쟁의 끔찍함을 되돌아보며 만든 이 작품은

제1차 세계대전(1914-1918)이 끝난 후인 1922년 제작됐다.

지금으로부터 약 70년 전인 1953년, 프랜시스 베이컨(Francis Bacon)은 다양한 이유로 감금된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괴로움과 내면의 절규를 '교환 인노첸시오 10세의 초상'에 빚냈다. 일그러진 얼굴에 비명까지 없어 억압적 상황마저 읽게 하는 이 작품 외에도 '풍경 속의 인물'(1945)이나 '인물 삼부작'(1972) 등의 많은 작품들이 인간이 처한 실존적 공포를 가감 없이 반영하고 있다.

난민들의 유품들을 전시공간에 펼쳐 놓은 '빨래방'(2016)과 3500개의 난민 구명 조끼를 이용한 '해돋이'(2017)와 같은 아이웨이웨이(Ai Weiwei)의 설치작업은 지중해를 건너다 목숨을 잃은 시리아 난민들의 비극을 상기시킨다. 175명의 정치적 망명자들의 초상화를 레고로 만들어 전시한 '제작'(2014)에서 마냥 현대사회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직설적으로 다루고 있다.

콜비츠에서부터 아이 웨이웨이까지, 1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가 외면하고 싶어 하는 인간의 불안과 절망은 지금도 유효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냥 이대로 무력함에 좌절하는 것이 전부일까.

이에 대해 게르하르트 리히터(Gerhard Richter)는 4부작 <비르케나우(Birkenau)>(2014)를 통해 역사적 비극을 드러내면서도 동시에 추모의 필요성을 괴렷했다. 나치에 의해 110만명의 사람들이 학살된 죽음의 장소인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촬영된 4장의 사진을 바탕으로 제작된 이 작품은 사진을 그대로 재현하는 대신 그림 위에 여러 겹의 페인트를 덧칠해 가려버렸다. 형상의 가독성을 해체시킴으로써 끔찍한 역사에 반대하며 애도를 녹여낸 것이다.

이들 작업의 공통점은 결국 잔인한 세상과 인간의 연약함을 직시하되 서로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에 있다. 고통이 몸을 휘감더라도 타인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의미해 보이더라도 고통에 맞서 싸우는 행동 자체에 의미가 있음을 가리킨다.

오늘날의 세계가 여전히 비극으로 넘쳐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예술가들은 체념만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가 그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작품마다 각인시켰다. 그것은 엄혹한 현실을 바로보면서도 더 나은 가능성을 믿는 용기였다. 비록 당장은 세상을 바꿀 수 없을 지라도, 무기력함이 억누를 지라도.

/홍경안 미술평론가

관세보다 무서운 건 '손님 없는 시장'



기지수첩
차현정 (산업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관세 폭탄'을 꺼내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한국에 일정 품목을 제외하곤 25%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서명했다. 국내 석유화학 제품은 지난 5일부터 10%의 기본관세가 부과되고 있었는데 상호관세까지 붙게 된 것이다.

가뜩이나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업황이 악화된 상황에서 업계는 또 악재를 마주했다. 다만 미국발 관세의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 당장 한숨 돌릴 여지는 있다.

지난 2023년 기준 국내 석화산업 전체

수출액은 약 46억달러이며 이 중 미국 수출은 약 4억달러로 8% 수준이다. 수출 비중이 37%에 달하는 중국에 비해 크지 않고 미국 시장 내 한국산 제품은 고기능성·고품질 제품 위주여서 가격보다는 성능으로 경쟁해 왔다. 같은 품목의 중국·유럽산 제품도 관세를 부과받는 만큼 상대적 불이익을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문제는 '관세'가 아니라 '수요'다. 미국 경기 둔화로 인한 전망 산업의 위축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제품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은 상존한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 석유화학 제품의 최대 수출국이지만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 중국은 자체 석유화학 설비 확장을 빠르게 추진 중이다. 예전처럼 한국 제품을 수입하기보다 자국 내 생산으로 돌리는 흐름이다. 게다가 중국의 건설·제조업 경기가 부진하

면서 플라스틱·합성수지 등 주요 석화제품의 소비 자체가 줄고 있다. 한마디로 시장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다.

기업 입장에서 관세는 외부 변수다. 불확실하지만 협상 여지가 있다. 다만 수요 부진은 다르다. 고객이 사라진 시장은 가격을 낮춘다고 해서 살아나지 않는다. 제품의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쓸 곳이 없으면 끝이다.

그래도 우리 기업들은 알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게 구조 조정이라는 걸. 누구보다 먼저 범용 제품에서 벗어나 스페셜티로 옮겨타고, 공정을 줄이고, 기술을 더해 수익 구조를 바꾸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가파른 언덕을 오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향후에 돌아봤을 때 가장 결정적인 시간이었다고 말하게 되길 바란다.

/hyeon@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4월 9일 (금 3월 12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과거 재능을 발전시키니 유용하다. 48년생 동업자와는 양보하고 상부상조로 인내. 60년생 일을 만들지 마라. 72년생 뜻이 관철되지 않아도 누구를 원망하지 말 것. 84년생 참아도 이해해도 배우자 덕이 없어 언제나 괴로움.



37년생 마음이 편하니 복이 절로 들어온다. 49년생 과유불급이라 약간 부족한 것이 이롭다. 61년생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는데 길을 비켜준다. 73년생 표리부동을 참아 내야 하는데. 85년생 바다보다 넓은 것이 하늘 아니겠는가.



38년생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에서도 생명은 존재하니 절망 말 것. 50년생 차 바꾸는 것은 다음으로. 62년생 체면치레가 손실이 커지니 거품을 즐기자. 74년생 사람에게 지시받는다 하고 부끄러워 마라. 86년생 마무리도 깔끔하게 된다.



39년생 밤을 이겨내면 찬란한 새벽을 본다. 51년생 길 떠나는데 폭풍이 오니 지체. 63년생 승진이 되니 천국에 온 듯. 75년생 인생은 언제나 불행 다음에는 행운도 오게 된다. 87년생 무관심이 화를 부르니 작은 일에도 신경을 써라.



40년생 소문난 잔치에 나만 초대받지 못한다. 52년생 머러만 믿지 말고 노력해야. 64년생 가까운 곳에 행운이. 76년생 나도 나이를 먹으니 자신을 낮추고 뒷사람을 공경해야. 88년생 거울 속의 얼굴은 천사인데 다시 보면 마음이 아깝다.



41년생 여행을 떠나려면 상비약을 챙겨라. 53년생 나이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챙겨라. 65년생 유쾌하고 상쾌하니 능률도 두 배로 증가. 77년생 슬프고 분하여 복받쳐 오른다. 89년생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재물이 얻게 될 것이다.



42년생 해외 나들이 소식에 마음은 들뜨고. 54년생 매사에 나의 일이라 생각해보자. 66년생 내키지 않는 술자리는 뒷받치지 말고 미리 거절하라. 78년생 온갖 경험을 두루두루 하다 보면 도사가 된다. 90년생 변화의 운이오니 이동하라.



43년생 돈거래는 신중히 처리하지 않으면 부서진다. 55년생 이사하려 하나 너무 많이 올라서. 67년생 이직이 어려우니 인내심을. 79년생 삶은 일을 당하여도 내색조차 할 수 없는 처지. 91년생 작은 것을 포기하고 큰 것을 노려보는 것도.



44년생 당구삼년페풍월(堂球三年賦風月). 56년생 동상에 걸린 발을 얼음물에 넣는 격. 68년생 이성각 부적절한 만남을 경계해야 미래가 평온. 80년생 부질없이 세월만 보내며 한탄하는 인생. 92년생 저축을 위해 좋아하는 취미를 포기.



45년생 관절 질환이 걱정되니 계단 조심. 57년생 투자하기 전에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할 필요도. 69년생 친구는 서로에게 보물과 같으니 평소엔 돈독히 지내도록. 81년생 암탉이 울어 결국 집안이 망했다. 93년생 여인 삼각관계를 유의해야.



46년생 사랑과 열정이 넘치는 하루. 58년생 회의 할 때 겸손하고 남을 탓하지 마라. 70년생 과음하여 머리 아프지 않게 적당히. 82년생 싸움에 노이불사(老而不死)라 생각만 가득. 94년생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가 가지 말라 왜 했겠는가.



47년생 경쟁력에서 창의력이 빛나는 날. 59년생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는 큰 이익을 얻기 어려울 듯. 71년생 성과가 더더도 오늘은 도전하라. 83년생 변경할 수 없는 규정을 놓고 월가월부. 95년생 천 리 길도 한 발짝부터 시작된다고 했다.



김상회의四季

빨간 봉투에 돈을, 이유는?

중국에 관한 영상을 볼 때면 눈에 뜨이는 게 있다. 아무 생각 없이 영상을 보다가도 퍼뜩 알아차리게 된다. 여기저기서 흔하게 보이는 용 그림과 빨간색이 그것이다. 새해맞이 행사가 벌어지거나 결혼식에서는 특히나 더 많이 보인다. 용과 빨간색은 중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상징물이다. 용과 빨간색이 상징하는 건 행운 그리고 재물이다. 복이 많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건 만국 사람의 공통된 마음이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에게 복이란 곧 재물이다. 사람에게 재물만큼 큰 복은 없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 행운을 바라고 그 행운이라는 건 재물과 연결된다.

중국 사람들은 재물을 부르는 상징인 용과 빨간색을 좋아한다. 상상의 동물인 용은 신화의 존재이면서 권력과 권위, 좋은 운세를 상징한다. 용을 왕권과 왕실의 상징으로 삼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비를 부르는 용은 농업 국가에서 풍년을 부르는 존재다. 풍년이 들면 살림이 피어나고 풍요로워진다. 풍요를 이루게 해 주는 건 곧 재물이니 용은 재물을 가져오는 행운의 동물이다. 빨간색은 중국에서 액운을 물리치고 행운과 재물을 가져오는 색으로 통한다.

중국인들이 빨간색을 그토록 좋아하는 이유다. 춘절이 되면 빨간색 폭죽을 터뜨리고 대문을 빨간색으로 칠하기도 한다. 복이 올 즈음이면 평안을 기원하는 문구를 빨간 종이에 써서 기둥에 붙인다. 흥바오는 빨간색 봉투인데 결혼식이나 생일 또는 명절 같은 기념일에는 흥바오에 돈을 넣어서 선물한다. 심지어 남들 모르게 불법으로 건네는 뇌물까지 흥바오에 넣어서 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풍습의 밑바탕에는 빨간색이 재물을 불러온다는 강한 믿음이 있다. 중국인은 숫자 중에서 8자를 좋아하는데 이것 역시 재물과 깊은 관련이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648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752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풀이:

		2	6	9				
	6				4	3		
9	5							
			3					8
4			5		1			7
5			2					
							9	6
	9	4				5		
		5		9	6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과파를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7	9	2	3	6		8
		7				
9	2					1
	5	1			9	8
					5	7
3						
				1		
1	4	5	7	3		2